

## 소양호와 청평사 역사를 간직한 주목

|                                                                                   |                     |                                                                                   |                   |
|-----------------------------------------------------------------------------------|---------------------|-----------------------------------------------------------------------------------|-------------------|
|  | <b>지정번호</b> 강원-춘천-2 |  |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
|                                                                                   | <b>지정년도</b> 1982    |                                                                                   | 청평리 산 189-2       |
|                                                                                   | <b>관리기관</b> 춘천      |                                                                                   | 37° 59' 12.47" N  |
|                                                                                   | <b>수령</b> 810년      |                                                                                   | 127° 48' 30.84" E |
|                                                                                   | <b>수고</b> 12m       |                                                                                   |                   |
|                                                                                   | <b>흉고둘레</b> 2,2m    |                                                                                   |                   |

오봉산은 5개의 봉우리가 발달한 산이다. 춘천 시내에서 북동쪽으로 소양호의 물길을 따라 올라가는 골짜기를 품고 있다. 계곡 중심에 춘천의 자랑인 청평사(淸平寺)가 있다. 도교적 은둔관과 불교의 선(禪) 사상이 내재한 절이다. 청평사 회전문에 깃든 전설이 잘 알려져 있다. 옛날 중국의 어느 공주를 사랑하는 청년이 황제에게 죽임을 당하자 뱀으로 환생하여 사랑하는 공주의 몸을 감고 떨어지지 않았다. 한 스님으로부터 고려의 청평사에 가면 뱀을 떼어낼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공주는 몸을 감은 뱀에게 기도하고 오겠노라며 청평사로 갔다. 공주를 기다리다 지친 뱀이 공주를 찾아 청평사에 들어서다 회전문 앞에서 벼락을 맞고 폭우에 떠밀려 죽고 말았다. 계곡에는 상사뱀 전설이 있는 공주 동상이 있다. 청평사의 자랑은 이것만이 아니다. 흔히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간다'는 나무가 있다. 주목이다. 수석에 곁맞게 이 나무는 높은 산야에 자라면서 위풍당당하게 크고, 죽어서도 세찬 눈보라와 비바람을 견디면서 그 모습을 오래도록 남겨둔다. 이런 나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오봉산 자락의 청평사에 자라고 있다. 고목으로 자라는 주목은 2그루이다. 청평사에는 보호수(강원-춘천-2)로 지정한 주목이 커다랗게 자라고 있다. 경내가 아니라 언저리의 비탈면에 위치하고 있다. 하나는 나무나이가 810년이다. 지표면과 붉은 줄기부터 가슴높이까지의 붉은빛 줄기에 외과치료를 한 흔적이 있다. 수형은 사방으로 넓게 퍼져 있다. 청평사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나무이다. 바로 옆의 주목도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이다. 나무나이가 500년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바로 옆 주목의 후계목으로 여기고 있다. 이 나무는 생육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사찰과 잘 어울리는 풍광을 보여주고 있다. 청평사는 영화 '생활의 발견'에서 주인공이 남루한 일상을 벗어나 홀로 떠나간 첫 번째 여행지이었다. 춘천에서 가장 잘 알려진 여행지 중 하나가 오봉산 자락에 있는 청평사이다. 때문에 많은 방문객이 찾는다. 방문객들은 커다란 주목의 보호수 앞에 이르면 으레 나무 앞에 동전을 던지면서 소원을 빈다. 경내 초입에 높게 자리한 은행나무의 위용도 감탄을 자아낸다.

